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객관화 전략 사용 양상 연구 -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 한 샘
(연세대학교)

배 미 연
(연세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학습자의 학술적 텍스트와 모어 화자의 학술 텍스트를 비교해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의 객관화 전략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객관화 전략은 학문적 탐구의 결과를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추어 과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적용하는 담화 기제로서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필자가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 연구에서는 객관화 전략의 언어적 표지를 관련된 의도성, 정확성, 완화 등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객관화 표지가 관련 기제들을 나타내는 표지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개념은 변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객관화 표지는 크게 연구 결과의 상태성을 강조하는 것과 연구 주체를 연구 결과와 분리하는 것, 연구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속 표현과 명사화 구문은 상태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비인칭 표현, 피동 표현, 자기 인용 등은 주장하는 바와 필자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며, 1인칭 대명사와 접미사 등을 통한 복수화는 연구 내용을 일반화 하는 데에 기여한다. 모어 화자 말뭉치와 비교하여 학습자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연구 결과의 상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에 비해 ‘-고 있다’는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으)ㄴ/는 것이다’ 등의 문법적 언어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27).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선도연구사업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2017-22-0138).

의 분리를 위한 비인칭 표현의 사용이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본 연구'와 '본고'에만 집중된 반면 모어 화자는 '본고, 본 연구, 본 논문, 본장 등'과 '이 연구, 이 논문, 이 장 등'이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복수화를 통한 연구 내용의 일반화는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활발하게 구현되었다. 이 연구는 객관성 구현의 관점에서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문 목적 학습자의 담화 표현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학문 목적 학습자, 학습자 말뭉치, 객관성, 객관화, 학술 텍스트

1. 머리말

이 논문은 넓은 의미의 담화 전략으로서의 객관화의 개념을 공고히 하여 관련 개념과 변별하고, 이를 나타내는 객관화 표지가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적 글쓰기에 구현된 양상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여훈(200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화 차원의 오류는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보다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서 발견된다. 학습자의 숙달도가 얼마나 높은지, 다시 말해 연구 대상이 되는 학습자 텍스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이인영(2011)과 같이 학술적 텍스트에서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서의 객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 초급 학습자와 달리 격식적 문어체를 제대로 구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할 수도 있고,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도 있다. 이 논의에서는 최고급 학습자의 전공 관련 학술적 글쓰기를 대상으로 객관화 전략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2언어 쓰기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학습자가 단순히 문법에 맞는 적법한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도달하고자 하는 언어 능력의 수준이 다르겠지만,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정확한 문장을 적절한 때와 상황에서 목표어의 모어 화자들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학습자의 최종 지향점이 되기 마련이다. 쓰기의 경우 특히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필수적인 언어 능력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급 학습자로 분류되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는 쓰기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주로 생산해야 하는 작문의 유형인 학술 텍스트는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달리 장르의 특성이 명확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문 목적 학습자의 경우 학술 텍스트의 담화 구조, 수사학적 전략 등과 같은 담화 차원의 쓰기 지식을 갖춰야지만 성공적인 글쓰기에 이를 수 있다. 선행 연구를 보면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쓰기에서 어휘나 문법보다 난도가 높은 담화 차원의 요소를 어려워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례로 박수진·강현화(2009)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학술적 텍스트라는 장르가 가지는 담화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한 미숙함을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최고급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텍스트의 담화적, 장르적 특성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텍스트의 담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학습자의 담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 Abdesslem(1996)의 비친숙성(unfamiliarity)과 같은 맥락이다. 모어 화자들은 자연스럽게 담화를 관습적으로 구성하지만, 학습자들은 그러한 담화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해당 담화 표지의 과생성이나 비활성화로 드러난다.

기존에 학술 텍스트를 담화 차원에서 접근했던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 연구를 보면 주로 학술 텍스트에서의 담화 표지나 완화 표현에 주목해 온 경향이 있다. 특정 장르에서 사용되는 수사적 전략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선인 것은 학술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장르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이다. 수사적 전략은 장르별 담화 특성의 이해가 선행된 다음 분석되어야 한다. 김한샘·배미연(2017)에서는 학술 텍스트가 가지는 담화 특성 중에서 특히 ‘객관성(objectivity)’에 주목해,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시키는 객관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의 객관성은 ‘필자가 학문적 탐구의 결과를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추어 과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화 기제’이며 객관화 전략은 이러한 객관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담화 전략의 일종이다. 학술 텍스트에서 특히 객관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최은지(2009)에서는 학술 텍스트가 반드시 객관적인 것만 다루어야 해서 객관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의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언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필자의 주관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학술 텍스트에서는 필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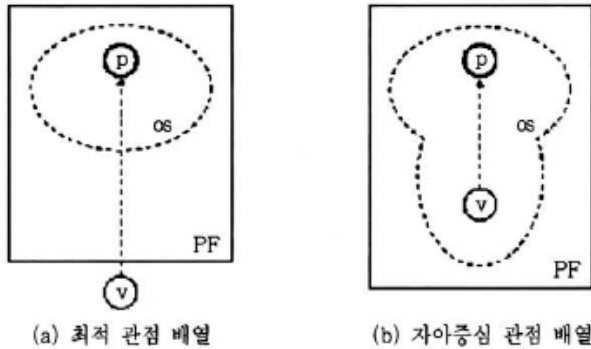
장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독자를 설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학문적 주장을 보편성과 타당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 기술을 통해 독자인 학문 공동체의 다른 연구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김한샘·배미연(2017)의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다. 학술적 텍스트에서의 객관화 전략을 실현하는 표지라고 제시했던 언어 표현들이 기존의 담화 표지 또는 완화 표현들로 제시되었던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하여 객관화 표지를 체계화하고 이에 따라 객관화 표지 목록을 수정, 보완하였다. 객관화 표지가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학술 텍스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객관성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I. 객관화 전략의 언어적 실현

1. 객관화 전략의 개념과 구현

학술 텍스트에서의 객관성은 필자가 학문적 탐구의 결과를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추어 과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적용하는 담화 기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객관성의 개념적 정의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임지룡(2004)에 따르면 객관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명제가 가지는 의미라기보다는 의미 해석에 참여하는 화자 또는 청자에 의해 해석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해석이란 ‘화자(또는 청자)와 그가 개념화하고 묘사하는 상황 간의 관계(Langacker 1987)’를 의미한다. 화자는 단순히 의미를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선택된 특정한 관찰 시점의 위치가 객관성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인 주관성을 결정하게 된다. 임지룡(2004)에서는 Langacker(1987)의 ‘무대 모형’을 통한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Langacker(1987)의 무대 모형(임지룡 2004, 17)

[그림 1]을 보면 최적 관점 배열(optimal viewing arrangement)에서 관찰자는 관찰 대상인 무대 외부에 존재하고, 자아중심 관점 배열(egocentric viewing arrangement)에서 관찰자는 관찰 대상인 무대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임지룡(2004)에 따르면 Langacker(1987)은 관찰자가 ‘무대 밖’에 있느냐 또는 ‘무대 안’에 있느냐에 따라 장면이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최대의 주관적인 언어 표현이란 관찰자가 관찰 상황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최소의 주관적인 언어표현이란 화자가 언어 배경(사건)이나 경험주로부터 명백하게 구별될 때의 언어 표현이다. 객관성은 발화와 그 해석이 화자와 청자로부터 얼마만큼 분리되어 이뤄지는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를 글쓰기의 주체인 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객관성 기제는 필자가 자신의 텍스트로부터 분리될 때 실현될 수 있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언어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객관성 및 객관화 전략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텍스트 유형에 대해 광범위한 언어 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되었다. 송용희(2005)에서는 ‘사실성 기제’, 송용희(2007)에서는 ‘객관화 담론 전략’이라는 용어를 통해 언론 담화에서 나타나는 객관성과 담화 전략에 대해 다룬 바가 있고, 신지연(2013)은 학술 텍스트 중에서도 특별히 인문학 분야의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담화 특징으로서 객관성과 그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편 객관화 전략 대신 ‘화자의 태도’라는 용어로 학술 텍스트의 객관성을 연구한 논의로 최

은지(2009), 이슬비(2016)가 있다. 최은지(2009)에서의 태도는 ‘표현 과정 중에 필자가 내용이나 독자에 대해 가지는 태도(김정자, 2001)’을 말하는 것인데, 학문적 텍스트에서 필자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때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태도의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했다.

앞선 김한샘·배미연(2017)에서는 학술 텍스트의 객관성과 관련해 선행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객관화 전략을 구현하는 언어 표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 객관화 전략 구현의 언어 표지

- ㄱ. 지속 표현 : -고 있다, -어 있다
- ㄴ. 비인칭 표현 : 본고, 대상 주어
- ㄷ. 피동 표현 : 피동사, -어지다 결합 구성, 명사-되다 결합 구성
- ㄹ. 명사화 구문 : -음, -ㄴ/는 것, -ㄴ/은 바, 완형 보문 + 추상 명사
- ㅁ. 인용 구문 : 간접 인용, 직접 인용
- ㅂ. 복수 표현 : 우리, -들

(1ㄱ)의 지속 표현은 연구 행위의 동작성보다 연구 결과의 상태성을 강조하여 학술 텍스트에서 객관화 전략을 구현하는데 활용된다. 변화의 의미를 가지는 동작상에 비해 동일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상태성의 강조를 통해 연구 결과 역시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1ㄴ)과 같이 비인칭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행위나 경험의 주체에 해당하는 의미역을 통사적 주어와 대응시키지 않는 객관화 전략에 해당한다. 대상화를 통한 객관화 전략은 비인칭화에서의 전형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1ㄷ)의 피동 표현을 통해서도 행위 주체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구현이 가능하다. (1ㄹ)은 명사형 어미나 명사화 구문을 사용하여 행위를 약화시키는 대상화를 통해 객관성을 추구하는 전략 표지이다. (1ㅁ)의 인용 구문과 객관화 전략의 관련성은 학술 텍스트에서는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인용의 형식을 통해 전달하는 자기 인용 구문에 국한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1ㅂ)과 같은 표현을 통해 연구 주체를 복수화해 전달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것도 객관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객관화라는 담화 전략의 실현이 언어로 드러난다고 할 때 그것은 문장

단위를 넘어서 담화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역시도 작문 교육에서는 다루야 할 내용이겠지만 이 논의에서는 교육 항목의 구체성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따라서 학술 텍스트에서 형태·통사적으로 나타나는 객관화 전략의 표지들에 집중해 위와 같은 항목들을 선정했다.¹⁾ 학술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학술 텍스트 장르에서 많이 쓰이는 특정한 담화 표지, 완화 표현, 의도성을 드러내는 표지 등에 대해 연구가 이뤄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표지를 보면 객관화 전략의 표지가 포함되어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다음 장에서는 (1)에서 제시한 객관화 전략의 표지가 기존에 제시되었던 다른 표지들과 어떻게 변별되거나 교집합을 이루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객관화 표지의 재검토

박나리(2008)에서는 학술 논문 필자의 텍스트 생산 목적과 관련된 의도성(intentional)²⁾을 드러내는 표지를 <표 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 명시 담화는 의도성에 의해 나타나는 학술 텍스트의 특징적인 담화 내용이지만, 이때 의도성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제시된 것의 일부는 객관화 전략과도 연관이 있다.

-
- 1) Hyland(2000)에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언어의 기능을 분석하기 이전에 이를 찾아내어 주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 형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술 텍스트에서의 객관성 또는 객관화 전략에 대해서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일차적으로는 형태·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어 표지를 선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여기서 의도성은 텍스트를 만든 텍스트 생산자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창작 의지 내지는 창작 목적을 말하는데, 학술 논문 텍스트에서는 필자의 의도성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텍스트화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했다.

〈표 1〉 목적명시담화에서의 의도성 표지(박나리 2008)와 객관화 표지

	의도성 표지	객관화 표지
대상(논문) 중심의 1인칭 표지	본 연구(본고, 이 글, 이 연구, 이 논문)(-에서)는, -고자 하다, -기로 한다, -겠다, -다/ 본고의 목적은 -이다, -하는 데 있다, -은 일이다 /본고는 -은 데에 목적이 있다, -을/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본고, 이 글, 이 연구, 이 논문)에서는/ 본고의 목적/본고는
전형적인 수행학술 어휘의 사용	살펴보다, 고찰하다, 논(의)하다, 규명하다, 밝히다, 제시하다, 모색하다, 제안하다, 개발하다	
기술의 일반화 및 압축성	압축적인 명사문체(substantive-style) 명사화	압축적인 명사문체 (substantive-style) 명사화

먼저 텍스트의 생산 목적을 명시하는 것 자체는 의도성이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대상(논문) 중심의 1인칭 표지’는 박나리(2008)에서도 언급했듯이 ‘필자’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해당 명제로부터 필자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객관화 전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 두 번째로 연구 행위 내지는 발화 행위를 뜻하는 수행 동사가 목적명시담화 표현에 쓰인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행위성이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의도성에서 보이는 특징이지만 수행 동사 자체가 객관화와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세 번째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일반화 및 압축성의 측면에서 명사화라는 통사적 기제의 구현이 객관화 전략과 관련된다. 박나리(2008)에서는 명사화는 일련의 동작(동사)으로 이뤄지는 사건을 객체화하여 하나의 상태로 파악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명사화를 통해 동작(동사)로부터 인식될 수 있는 주체를 사건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명제 자체를 상태로 객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목적 명시 담화’ 자체는 객관성보다는 ‘의도성’에 초점을 맞춘 담화의 유형이지만, 목적 명시 담화를 실현하는 언어 형식 중 일부는 연구 목적을 명시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

3) 박나리(2008)에서는 이는 학술 논문 텍스트 장르가 표현 방식적인 측면에서 personalization을 지양하고 impersonalization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며, 일반적으로 personalization의 정도는 주관성과 비례하고 객관성과 반비례한다고 했다.

는 객관화 전략으로 나타난다.

신지연(2013)에서는 인문학 학술 텍스트의 담화 특징으로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는 전략을 <표 2>와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정확성/객관성 표지(신지연 2013)와 객관화 표지

	정확성/객관성 표지	객관화 표지
대상화 전략	ㄱ. 명사문체: -음, -ㄴ/ㄹ 것, -는 점, -는 사실 등의 완형 보문 ㄴ. 비인칭화: 홍길동(2012), 본 연구, 본고 등 ㄷ. 수동태: ...로 보인다 등 ㄹ. 진행상: -어 있-, -고 있-	ㄱ. 명사문체: -음, -ㄴ/ㄹ 것, -는 점, -는 사실 등의 완형 보문 ㄴ. 비인칭화: 홍길동(2012), 본 연구, 본고 등 ㄷ. 수동태: ...로 보인다 등 ㄹ. 진행상: -어 있-, -고 있-
보충설명을 통한 구체화 전략	ㄱ. 부가어를 통한 구체화 ㄴ. 관형절을 통한 구체화 ㄷ. 심화문장을 통한 구체화	
문체 전략	ㄱ. 가능성 양태를 이용한 완충 표현 : ...할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고 하겠다 등 ㄴ. 격식적 문체: 정도 부사의 사용 기피, 문어체 어미 사용 등	

명사문체, 비인칭화, 수동태, 진행상 등의 대상화 전략은 신지연(2013)에서도 정확성보다는 객관성의 측면에서 기술한 것으로 객관화 전략 표지에 해당한다. 한편 구체화 전략의 경우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충적 요소들로서 이들의 일차적 목표는 객관성보다는 정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기술일수록 설명의 타당성이 커지고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는 차원에서 부가어, 관형절, 심화문장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객관성보다는 정확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문체 전략의 경우 가능성 양태를 이용한 완충 표현을 사용하여 오류 가능성을 흡수해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가능성 양태 자체는 화자의 판단 및 태도를 개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화 전략과 거리가 있다.

다음으로 학술 텍스트에 등장하는 언어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졌던 완화 표현⁴⁾과 객관화 표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완화 표현에 대해 이준호(2012)에서는 ‘잠정성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필자가 자신의 진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행위(Hyland 1995)로, 필자가 자기주장의 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분명히 검증되지 않은 제안에 조심성을 더하기 위하여, 혹은 확신이 있더라도 이를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도적 언어적 장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신명선(2006)에서는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학술 텍스트에 드러난 완화 표현의 체계를 다음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완화 표현(신명선 2006)과 객관화 표지

	완화 표현	객관화 표지
가능성과 추측	수, 겠, 아마도, 듯하다	
일반화의 방지 (전제와 부분)	~중의 하나, 한, 일종의 등	
드러내기-숨기기 (주체화-객체화)	ㄱ. 주체화(예: 나는 ~ 생각하다 류) ㄴ. 객체화(예: 피동 표현, 객체 주어 사용)	ㄴ. 객체화(예: 피동 표현, 객체 주어 사용)
한정	거의, 주로, 크게, 비교적, 큰, 깊이 있게, 그리, 다소- 어떤 내용을 한정함으로 명시적으로 판단을 유보함	
전제와 함축	부정 표현: 부정 표현은 긍정 표현이 갖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내포, 부정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긍정 명제의 전제와 함축에 의해 연구자의 견해가 소극적으로 드러남	
수행성 약화	곤란하다, 무리가 있다, 필요성을 제기한다, 필요하다, 우려가 있다.	

4) 영어로 ‘hedge’, ‘mitiga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한국어로 나타내는 데에 헤지 표현(신명선 2006/이준호 2012), 주저 표현(박나리 2013), 완충 표현(신지연 2013), 완화 표지(신영주 2011), 완화 표현(고재필 2017)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완화’의 개념이 범위가 넓고 이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의 집합이 형식과 목적의 차원에서 개방적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완화 표현’을 선택해 사용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완화 표현에서 객관화와 관련되는 것은 ‘드리내기-숨기기(주체화-객체화)’이다. 이는 명제 내용과 연구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 중에서 숨기기(객체화)는 이를 통해 해당 명제 내용과 연구자의 거리를 명확히 분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객관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신영주(2011)에서는 <표 4>와 같이 완화 표현을 제시하고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4> 완화 표현(신영주 2011)과 객관화 표지

		완화 표현	객관화 표지
부가적 완화 표현		ㄱ. 모호의 완화 표현: 거의, 다소, 비교적, 어느 ㄴ. 부정칭의 완화 표현: 어느, 어떤 ㄷ. 불확실의 완화 표현: 아마(도), 어쩌면	
내용 중심 완화 표현	정확성 중심	ㄱ. 인용의 완화 표현: -고 + 전달 동사(말하다, 주장하다 등) ㄴ. 증거의 완화 표현: 인지 동사(생각하다, 여기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해석하다 등) + -고 있다	
	필자 중심	ㄱ. 판단의 완화 표현 : -(으)ㄴ/는 편이다, -(으)ㄴ/는/르 것 같다. -(으)ㄴ/는/르 듯하다, -(으)ㄴ/는가 보다, -(으)ㄴ 것이다, -(으)ㄴ 법하다, -(으)ㄴ 수 있다. -(으)ㄴ까 생각하다, -(으)로 보다/보이다, -아/어/여 보이다, -겠-, 가능하다, 가정/추측/추정하다, 의의가 있다, 짐작하다, 필요성이 있다, ‘부정표현+완화표지’ 등 ㄴ. 객관화의 완화 표현 : 연구자, 우리, 본고, 본 연구	ㄴ. 객관화의 완화 표지 : 우리, 본고, 본 연구

인용은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다른 연구자의 논의를 인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완화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술 텍스트라는 장르에 국한하여 생각해 보면 인용이 장르의 성립과 연구 윤리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용의 형식을

취했다는 것만으로 담화 전략으로서의 객관화를 구현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신영주(2011)에서 완화 표현으로 제시한 일반적인 인용의 방식보다는 자신의 주장이지만 인용 형식을 통해 필자를 명제로부터 분리시키는 자기 인용 구문이 객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고 있다’도 필자가 드러나는 인지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오히려 객관화와 거리가 있다. 신영주(2011)에서는 객관화의 완화 표현으로 ‘우리, 본고, 본 연구, 연구자’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중 필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연구자’를 제외한 표현들은 비인칭 표현을 통해 연구의 주체를 통사적 주어로 드러내지 않거나 연구 주체를 복수화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그대로 객관화 표지로 수용할 만하다.

이준호(2012)에서는 완화 표현을 어휘·문법적 표현과 정형·준정형화된 표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중 어휘·문법적 표현에 한정하여 객관화 표지로서의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것이 <표 5>이다.

<표 5> 완화 표현(이준호 2012)과 객관화 표지

		완화 표현	객관화 표지
어휘· 문법적 표현	판정 의미의 동사	ㄱ. 판정 의미 동사: 보다, 나타나다, 생각하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등 ㄴ. 그 동사의 피·사동형: 보이다, 나타나다, 생각되다, 기대되다, 예상되다	ㄴ. 그 동사의 피·사동형: 보이다, 나타나다, 생각되다, 기대되다, 예상되다
	긍정적· 부정적 태도 형용사류	가능하다, 바람직하다, 어렵다, 쉽다, 필요하다, 당연하다, 타당하다 등	
	양태 부사 및 부사적 표현	아마도, 대체로, 비교적, 꽤, 대략적으로 등	
	양태성 명사	가능성, 필요성, 추측, 중요성, 뜻, 의미, 의도, 제한, 한계, 경향, 문제, 결합, 비중, 경우	

		완화 표현	객관화 표지
어휘 · 문법적 표현	양태 의미의 선어말 · 연결 · 종결어미 표현	ㄱ. 선어말 어미: 겠, 리 ㄴ. 연결 어미 표현: -(으)ㄴ 지 ㄷ. 종결 어미 표현: -(으)ㄹ 수 있다, -다/(이)라고 할 수 있 다. -(으)ㄴ/는/-(으)ㄹ 것이 다. -다/(이)라는 것이다. - (이)기도 하다. -게 되다 등	ㄷ. 종결 어미 표현 : -(으)ㄴ/는 것이다 (명사화)

판정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의 경우 주체의 행위성의 측면에서는 객관화로 볼 수 없지만, 판정 동사의 피동형의 경우 주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객관화 전략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정 동사의 피동형은 학술 텍스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준호(2012)에서는 ‘-(으)ㄴ/는/ㄹ 것이다’를 완화 표현으로 제시했는데 ‘ㄹ 것이다’는 이것이 가지는 가능성의 양태적 의미로 인해 명사화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객관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으)ㄴ/는 것이다’는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 결과의 상태성을 강조하는 객관화 표지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완화 표현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잠정성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완곡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단순히 내용이나 주장이 특정 언어 표현을 통해 완화되어 전달되는 것은 객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완화 표현 중에서 필자를 텍스트로부터 분리시켜 객관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만 객관화 표지와 의 교집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단순히 필자를 텍스트로부터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완화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단순히 명사화 구문이나 대상 주어만을 쓴 것은 객관성을 구현한 것이라 봐야 하고 그것을 통해 필자의 주장이 제시되어야만 완화 표현에 포함될 수 있다. 완화와 객관화는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담화 기제이지만 완화가 주장하는 내용을 약화시켜서 부담 없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객관화는 필자 개인을 주장하는 내용과 분리하고 연구 내용의 안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주장하는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변별된다. 다만 두 개념이 모두 독자의 필자에 대한 신뢰도라는 가변적 요소에 대한 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에 있어서는 완화와 객관화에 공통적

으로 해당하는 언어 표현의 교집합이 존재한다.

Ⅲ.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객관화 전략 구현 비교

1. 객관화 표지 구현의 정량적 비교

2장에서 객관화 표지를 재검토한 결과와 학술 텍스트의 분석을 토대로 (1)의 객관화 표지를 체계화,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 아래 <표 6>이다.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학술 텍스트에서의 객관화 전략은 크게 ‘연구 결과의 상대성 강조’, ‘연구 주체의 분리’, ‘연구 내용의 일반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6> 객관화 표지 목록

대분류	소분류	객관화 표지
연구 결과의 상대성 강조	지속 표현	‘-고 있다’
		‘-아/어 있다’
	명사화 구분	‘-ㅁ/음’, ‘-기’
		‘-(으)ㄴ/는 것이다’
		‘-(으)ㄴ/는 점이다’
	완형 보문 + 추상 명사	
연구 주체의 분리	비인칭 표현	‘본고’, ‘본 연구’, ‘본 논문’, ‘본 장’, ‘본 절’, ‘본 글’
		‘이 연구’, ‘이 논문’, ‘이 장’, ‘이 절’, ‘이 글’
		연구자(연구년도)
	피동 표현	피동사
		동사 + ‘-아/어지다’
		명사 + ‘-되다’
	자기 인용 구분	‘-고 하다’
연구 내용의 일반화	필자의 복수화	‘우리’
	필자와 독자의 공동체화	‘우리’
	인용 대상의 복수화	‘들’

‘연구 결과의 상태성 강조’는 텍스트에서 변화의 의미를 가지는 동작성보다는 변화하지 않고 지속됨을 함의하는 ‘상태성’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당 명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화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속 표현’과 ‘명사화 구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속 표현인 ‘-고 있다’와 ‘-아/어 있다’는 다양한 어미를 취할 수 있지만 관형형 전성어미와 결합하여 연구 결과의 상태성 강조보다 뒤에 수식을 받는 명사의 상태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는 분석 시 제외하였다. 실제 학술 텍스트를 분석할 때 지속 표현 중에서도 연구 행위의 동작성을 연구 결과로서의 상태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려고 했으나 연구 관련성의 판단이 어렵고, 넓은 의미에서 학술 텍스트에서 기술되는 내용은 다 연구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 표현의 ‘-고 있다’와 ‘-아/어 있다’가 완화 표현 또는 양태성 어미/표현과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때의 ‘-고 있다’와 ‘-아/어 있다’는 객관화 표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명사화 구문’을 살펴보면 ‘-ㅁ/음’, ‘-기’, ‘-(으)ㄴ/는 것이다’, ‘-(으)ㄴ/는 점이다’, ‘완형 보문 + 추상 명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 주체의 분리’는 텍스트에서 연구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주체의 개입을 숨겨 보다 객관적으로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는 ‘비인칭 표현’, ‘피동 표현’, ‘인용 구문’을 통해 나타난다. 비인칭 표현에는 ‘본’+연구 대상, ‘이’+연구 대상, 연구자(연구년도) 등이 있다. 텍스트에 비인칭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조사는, 본 연구를 통해’ 등과 같이 연구 주체로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형태가 같다고 하더라도 객관화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동 표현’에는 피동사, 동사 + ‘-아/어지다’, 명사 + ‘-되다’ 등이 속하는데, 이 역시 연구 주체의 분리로서의 객관화 표지는 연구 주체가 피동화가 되었을 경우만 해당하고 연구 주체의 피동 표현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김한샘·배미연(2017)에서는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으로 인용 표현을 제시했었으나 재검토를 거쳐 ‘연구자(연구년도)’로 기술되는 인용의 경우 연구자를 연구 대상으로 나타내는 비인칭 표현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고 하다’로 나타나는 자기 인용만을 다룬다. 학술 텍스트의 구조와 전개에 선행 연구에 대한 인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을 포함하는 인용의 형식 전체를 학술 텍스트의 객관화 표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구 내용의 일반화’는 복수 표현을 통해 연구 내용을 일반화시켜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표지는 ‘우리’와 ‘-들’이지만 이들은 필자의 의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리’는 연구 주체를 복수화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도 하고 필자와 독자를 같은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일반화하기도 한다. 복수 접미사 ‘-들’로 연구자나 연구물 등 학술적 텍스트에서 근거로 삼는 내용적인 인용 대상을 복수화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일반화할 수도 있다. 이때 복수가 되는 대상은 필자를 지칭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연구물과 관련지어 피인용된 저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다.

<표 6>의 목록에 제시한 객관화 표지의 빈도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 말뭉치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 말뭉치는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에서 구축한 학술 말뭉치 중 학습자 말뭉치와 분야가 같은 인문·사회 분야 논문 180편을 추려서 사용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연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전공 보고서 자료를 활용했다. 중국어를 모어로 하며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을 충족하는 균질한 최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전공 관련 학술적 글쓰기의 결과이다. 인문·사회 계열의 보고서만을 골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김한샘·배미연(2017)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표 7>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객관화 전략 표지 구현

대분류	소분류	객관화 표지	사용 빈도			
			한국어 학습자		모어 화자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연구 결과의 상태성 강조	지속 표현	-고 있다	372	679	3,751	449
		-아/어 있다	66	121	1,065	127
	명사화 구문	-(으)ㄴ/는 것이다	156	285	2,663	319
		-(으)ㄴ/는 점이다	6	11	182	22

대분류	소분류	객관화 표지		사용 빈도			
				한국어 학습자		모어 화자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연구 주체의 분리	비인칭 표현	본 + {연구 대상}	본고	17	31	317	38
			본 연구	32	58	120	14
			본 논문	3	5	37	4
			본 장	0	0	5	1
			본 절	0	0	6	1
			본 글	1	2	1	0
		이 + {연구 대상}	이 연구	1	2	52	6
			이 논문	2	4	70	8
			이 장	0	0	35	4
			이 절	0	0	20	2
			이 글	2	4	145	17
		연구자(연구년도)		11	20	588	70
피동 표현	보이다	22	40	617	74		
	{명사}-되다	45	82	2,027	242		
자기 인용 구문	-고 하다	30	55	275	33		
연구 내용의 일반화	필자의 복수화	우리	2	4	91	11	
	필자와 독자의 공동체화	우리	11	20	405	48	
	인용 대상의 복수화	들	23	42	522	62	

두 말뭉치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들 말뭉치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말뭉치는 서로 양적인 규모가 같지 않다. 학습자 말뭉치의 경우 54,751어절의 말뭉치이며, 모어 화자 말뭉치는 836,086어절로 구성된 학술 말뭉치이다. 모어가 동일하고 숙달도가 통제된 학습자 말뭉치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말뭉치의 양적 불균형을 고려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10만 어절을 기준으로 한 상대 빈도를

구해서 제시하였다. 모어 화자 말뭉치의 경우 이미 완성된 학술 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완성도를 갖춘 텍스트이지만, 학습자 말뭉치의 경우 학술 논문 이전 단계인 보고서 자료이다. 학습자 보고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최종 목표가 모어 화자의 완성된 학술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들 말뭉치의 비교를 통해 학문 목적 학습자의 중간 언어 특성을 밝히려 하였다. 다음 절에서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객관화 표지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2. 객관화 표지별 사용 양상 분석

2.1. 연구 결과의 상태성 강조

① 지속 표현

객관화 전략의 구현을 위해 지속 표현인 ‘-고 있다’와 ‘-아/어 있다’를 사용한 경우 학습자와 모어 화자를 비교해 보면 먼저 두 집단 모두 ‘-고 있다’를 ‘-아/어 있다’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아/어 있다’가 상태의 지속만 나타내는 데에 반해 ‘-고 있다’는 상태의 지속뿐만 아니라 행위의 지속도 나타낼 수 있다는 표현 자체의 의미적 분포가 반영된 것이다. 각각의 표현에 대한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면 ‘-아/어 있다’의 상대 빈도는 학습자 말뭉치와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각각 121회, 127회로 비슷한데 ‘-고 있다’는 679회, 449회로 학습자의 학술 말뭉치에서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학습자 말뭉치 전반에 걸쳐 (2ㄱ)과 같이 ‘-고 있다’가 한 문장 안에 여러 번 등장하는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ㄱ’)와 같이 ‘-고 있다’를 제거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 학습자가 (2ㄱ)과 같이 과도하게 지속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제나 상의 문법 범주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들이 한국어의 진행상의 표현으로 학습하게 된 ‘-고 있다’를 과생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正在’와 같은 부사의 수식으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와 다른 사용 양상을 보이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표현상의 비친숙성이 빚어낸 결과이다. 객관화를 구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학습자 말뭉치에서 ‘-고 있다’와 결합한 동사들을 살펴보면 물리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는 (3ㄱ)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비유적인 의미를 획득하여 ‘-고 있다’를 통해

객관화되기도 하였다. ‘-아/어 있다’는 (2ㄴ), (3ㄴ)과 같이 행위나 변화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냄으로써 객관화 표지로 기능한다.

- (2) ㄱ.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데,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에너지 소비 총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 ㄱ'.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에너지 소비 총량의 90%를 차지한다.
- 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한국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어 있다.
- (3) ㄱ. 이러한 담론적 논쟁은 무상급식 사례가 보여주듯이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일반 주민들에게도 현실 생활에서 경험하는 실제로서 다가오고 있다.
- ㄴ. 정치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② 명사화 구문

<표 6>에서 제시한 명사화 구문의 유형 중 의존명사를 포함하는 ‘-(으)ㄴ/는 것이다’, ‘-(으)ㄴ/는 점이다’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신지연(2013)에서는 ‘-(으)ㄴ/는 것’은 전형적인 명사문체(nominal style)에, ‘-(으)ㄴ/는 점’은 완형보문에 해당하는 예로 들었으나 문법적 언어인 ‘-(으)ㄴ/는 것이다’, ‘-(으)ㄴ/는 점이다’을 별도의 객관화 표지로 설정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동작성을 상태화하는 것을 넘어서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들 표현은 비인칭 주어와 호응하여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선행 문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서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안인경·강병창(2009), 정상철(2016) 등의 연구에서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며 학술 텍스트의 기본적인 목적과 부합한다. <표 6>에서 다룬 표현과 유사한 구성으로 ‘-(으)ㄴ/는 바이다’가 있으나, (4)의 예와 같이 수행동사와 결합하여 주어인 필자의 명제에 대해 확신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객관화 표지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 (4) ㄱ. 말뿐인 사과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ㄴ. 나는 이번 사건의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바이다.

각각의 표현에 대한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니 ‘-(으)ㄴ/는 것이다’의 상대 빈도는 학습자 말뭉치와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각각 285회, 319회로, ‘-(으)ㄴ/는 점이다’는 11회, 22회로 모어 화자의 학술 말뭉치에서의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격식적인 문어체인 학술 텍스트에서 주로 나타나 분포가 제한적인 이들 표현을 배울 기회가 학습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어 학습자에게는 중국어에 의존명사 범주가 없다는 것도 이러한 표현을 구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문법적 언어, (표현) 문형, 문법 항목 등으로 지칭되는 구성을 제시한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2005)’,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2011)’,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015)’ 등의 자료에 이러한 ‘-(으)ㄴ/는 것이다’, ‘-(으)ㄴ/는 점이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사형 전성어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는 것’만 각각의 목록의 초급 단계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유성희(2016)에서는 교재와 사전 22종을 분석하여 문법적 언어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으)ㄴ/는 것이다’가 7종의 자료에 포함된 것과 달리 ‘-(으)ㄴ/는 것이다’는 어느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문법적 언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에 대한 연구인 두도(2017)에서도 한국과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와 사전 목록을 분석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으)ㄴ/는 것이다’만 포함하였다. 한편 분야별 학술 말뭉치를 분석하여 정형 표현을 연구한 허희정(2016)을 통해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으)ㄴ/는 것이다’의 다양한 변이형이 최상위 정형 표현임이 드러났다. 학술적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을 드러내지만 기존 교육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표현들은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재에서 따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 다음 (5)는 ‘-(으)ㄴ/는 것이다’, ‘-(으)ㄴ/는 점이다’가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예인데 (5ㄱ), (5ㄴ)은 각각 (5ㄱ’), (5ㄴ’)와 같이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맥락에 따라 의존 명사에 선행하는 어미를 바르게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 (5) ㄱ. 한국인이 '정(情)'이 많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한국의 강한 집단 경향을 말한 것이다.
- ㄱ'. 한국인이 '정(情)'이 많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한국의 강한 집단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 ㄴ. 지역규범의 가장 큰 문제는 적용 범위의 지역적 한계와 구속력이 떨어지는 점이다.
- ㄴ'. 지역규범의 가장 큰 문제는 적용 범위의 지역적 한계와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2.2. 연구 주체의 분리

① 비인칭 표현

비인칭 표현을 살펴보면 학습자와 모어 화자 모두 '본 + {연구 대상}'의 구성을 '이 + 연구 대상'의 구성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본 + {연구 대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상대 빈도 58인 '본 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모어 화자들은 상대 빈도 38인 '본고'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초록이나 서문에 '본고'라는 어휘가 매우 흔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습자가 '본 연구'를 더 선호하는 것은 중국어에 '본고'에 해당하는 어휘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경우 '본 + {연구 대상}' 표현에 집중되어 비인칭 표현이 나타나는 데에 반해 모어 화자의 경우는 그 분포가 '이 + {연구 대상}'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이 글'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경우 비인칭 표현을 사용해 연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나타내는 능력이 모어 화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이 글'의 상대 빈도가 17로 가장 높은 반면 '본 글'은 출현하지 않는 것은 모어 화자들이 '이'와 '본'이 각각 고유어와 한자어로 어종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경우 어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본 글'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학습자 말뭉치에서 나타난 '본 +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고, 본 연구, 본문, 본 실험, 본 논문, 본 보고서, 본 글, 본론'의 표현이 나타났다. '이 + {연구 대상}'의 구성의 경우는 '이 발표, 이 소논문, 이 글, 이 논문' 등이 비인칭 주어로 사용되었다.

- (6) ㄱ. 본문은 중한문 문장 부호 간의 이동(이동)함을 토론하여 중한문의 문장 부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며, 문장 부호 사용 착오를 피면 번역도중 문장 부호의 처리에 일정한 참고를 제공 교학 시 교사와 학생의 중한문 문장 부호의 이해와 장악을 더욱 좋게끔 도와줌.
- ㄴ. 본 글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ㄷ. 본론에서는 먼저 제1장 서론에서 연구 배경,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목적을 서술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6)과 같은 표현은 학습자 텍스트에서만 나오는 특징적인 표현이다. 학습자들이 비인칭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담화적 지식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본문, 본 글, 본론’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이 나타난 것은 ‘본문’인데 이것은 모어인 중국어에서 ‘본고’에 대응하는 어휘가 ‘本文’이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본문’, ‘본론’ 등의 어휘는 글의 구성과 관련된 의미와 중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따로 교육해야 할 항목이다.

다음으로 ‘연구자(연구년도)’의 형태의 경우는 상대 빈도가 20으로 모어 화자의 70에 비해 3.5배나 낮게 나타났는데, 이 형식 자체가 객관화 표지에서는 비인칭 표현에서 다루고 있지만 20편의 학술적 텍스트에서의 인용 빈도라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의 텍스트가 학술 논문의 전 단계인 보고서라는 점에서 인용의 횟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구체적인 중국인 학습자들의 인용 방식을 살펴보면 모어 화자들과 인용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사실이다.

- (7) ㄱ. 이번 회의에서 회의개막사 담당은 식품공업부 차관 송유화와 정부 측의 대표들은 동북지역의 연초업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상해 연초의 근경을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무역방식에 따른 “생산과잉”과 “사영기업의 맹목적인 경영”의 탓으로 돌렸다¹⁵⁾.

15) 송유화, 「제일계전국권연공업회의개막사」, 양국안 편, 『중국연업사회전』, 북경: 광명일보출판사, 2002, 1667-1668쪽.</p></div>

- ㄴ. 특히 괄괄약은 자기의 <비랑기정표점>(<비갱집 정표점>)에서 ‘언

급 하는 바와 같이 문장 부호는 어찌 보면 문자와 같은 위치에서 있다.

- ㉔. 이교수는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메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장을 했다.

(7ㄱ)의 경우와 같이 인용의 표현을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인칭 주어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주에서 참고문헌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연구자(연구년도)’의 인용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7ㄴ)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필자와 저서를 제시하여 인용을 표현하는 방식도 나타났으며, (6ㄷ)에서처럼 필자의 성과 직함만을 기술하여 인용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연구 주체인 필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8)과 같은 문장도 나타났다.

- (8) ㄱ. 나도 학교 다니는 동안 타고 수업 또한 본 과 학부 수업 청강하는 기회를 얻어 한 학기 동안 연구자로서 참여관찰을 했다.
- ㄴ. 내 생각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② 피동 표현

피동 표현은 학습자 말뭉치와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의 빈도가 확연히 차이가 났다. 객관화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피동사’인 ‘보이다’의 상대 빈도를 산출한 결과 학습자 말뭉치에서 40회 출현할 때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74회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9)는 학습자 말뭉치에서 ‘보이다’를 포함한 문장의 예이다.

- (9) ㄱ.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탄소거래 시장을 건립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실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 ㄴ. 이는 상해 연초업의 사회주의 개조의 진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명사-되다 결합 구성’의 피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습자 말뭉치와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각각 82, 242로 빈도가 3배의 차이를 보인다.

‘되다’ 앞에서 주로 나타난 명사들은 다음과 같은데 주로 필자의 연구 수행 또는 해석과 관련된다.

(10) 추정, 추측, 확인, 예상, 모색, 선정, 구성, 판단, 발견, 기대, 해석

(11) ㄱ. <사미인곡>은 정철이 동인들의 탄핵을 받고 창평으로 내려온 후의 작품이라고 추정한다.

ㄴ. 이러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학교생활 적응에 적극적이지 않고 대학원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예상했다.

(11)의 예시들은 객관화 전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학습자의 문장이다.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서 피동으로 나타나 연구 주체인 필자와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을 표현들이지만 학습자의 텍스트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구 주체인 필자와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동사들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서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③ 자기 인용 구문

박나리(2014)에서는 자기 인용 구문의 담화적 기능을 선행문장(선행담화)에 대한 화자의 해석이나 의견 제시, 선행문장(선행담화)를 근거로 추론하여 얻은 화자의 결론적 해석이나 의견 제시, 선행문장(선행담화)에 대한 상술, 선행문장(선행담화)에 대한 첨가 및 심화의 담화 맥락 유효적 표시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필자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대상 차원의 사실을 화자 의견 층위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성의 구현과도 관련이 있다. 학습자 말뭉치에서 추출한 (12ㄱ)과 같은 문장은 인용 표지와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결합한 전형적인 자기 인용 구문이다. 자기 인용 구문의 상대 빈도가 학습자 말뭉치에서 55,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33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12ㄴ)과 같은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2) ㄱ.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의 영향력은 크다고 하겠다.

ㄴ. 대청무역을 하나는 “조공체제” 하에 제한을 받은 무역으로 보

는 견해이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중세사회의 경제적 변동의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견해이다.

2.3. 연구 내용의 일반화

학문적 탐구의 결과를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기술하기 위한 객관화 전략은 연구의 내용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복수 연구자의 의견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연구의 내용이 필자와 독자를 포함한 학문 영역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제시함으로써 구현된다. 논의의 근거가 되는 인용된 선행 연구가 여러 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연구 내용을 일반화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표 7>의 상대 빈도를 통해 복수 표현을 통해 연구의 내용을 일반화하는 전략은 모어 화자가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3) ㄱ. 이상 문장을 보니까 우리 다시 말하자면 한국 학생들은 심표를 사용할 때 가장 실수한 부분이 바로 착오 오류, 누락 오류, 덧붙임 오류 이 세 가지 오류다.
 - ㄴ. 우리는 ‘북경언어대학 HSK동태 코퍼스’(북경언어대학 HSK동태 어요고)에서 30편 한국 학생 대상으로 글을 뽑아서 심표의 사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 (14) ㄱ. 그것을 우리는 형태소의 의미 보존과 관련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 ㄴ. 우리는 ‘르’ 말음 어간과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 수의적 변이 형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13), (14)는 각각 학습자 말뭉치와 모어 화자 말뭉치에 나타난 연구 주체 복수화의 예이다. 실제로 명시된 필자는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이라는 복수 주어를 씌으로써 연구 주체를 복수화하여 객관화 전략을 구현하였다.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연구 목적이나 방법 등을 기술하는 글의 도입부에서 이러한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 (15) ㄱ. 특정 환경에 쓴 문장 부호와 상응한 문장 부호의 지식을 빌려 우리는 작가 창작의도 및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추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ㄴ. 현재 우리가 지식에 대한 분류, 및 각종 사상과 학술파에 대한 구분은, 고인보다 훨씬 고명하고, 많이 과학화되었다.
- (16) 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관리개혁(New Management)의 방식을 띠고 전개되었다.
- 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연구와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고등교육 기관이다.

(15), (16)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로 필자와 독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지칭함으로써 객관화를 추구한 예이다. 이 경우 ‘현재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과 같은 표현을 통해 논의 전개의 배경이 되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음 (17)은 인용의 대상이 되는 선행 연구나 선행 연구의 저자를 복수화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일반화한 학습자 문장의 예이다.

- (17) ㄱ. 선행연구들은 중국 유학생 유치와 관리에 관한 것이 많고, 유학생들이 겪는 문화갈등 또는 문화적응이라는 단일 영역에 치우쳐 있다.
- ㄴ. 셋 째, 기준의 연구들이 주로 사회심리학적 연구고 사회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많이 다뤘으며 실제적인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거쳐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연구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구의 연구들을 근거로 유학생들의 한국적응 상태를 측정하였다.
- ㄷ. 실제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IV. 맺음말

학문적 탐구의 결과를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추어 과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적용하는 담화 기제로서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필자가 사용하는 객관화 전략의 언어적 표지를 관련된 기제의 개념과 표지와 비교하여 검토하

였다. 의도성, 정확성, 완화 등의 개념과 표지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객관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관련 기제들을 나타내는 표지와 일부 겹치는 교집합이 있고 변별되는 차집합도 존재함이 드러났다. 객관화 표지는 크게 연구 결과의 상태성을 강조하는 것과 연구 주체를 연구 결과와 분리하는 것, 연구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속 표현과 명사화 구문은 상태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비인칭 표현, 피동 표현, 자기 인용 등은 주장하는 바와 필자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며, 1인칭 대명사와 접미사 등을 통한 복수화는 연구 내용을 일반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각각의 구체적인 표지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연구 결과의 상태성을 강조하는 유형에서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에 비해 ‘-고 있다’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으)ㄴ/는 것이다’와 같은 문법적 언어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체를 분리하는 객관화 전략을 구현할 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비인칭 주어가 ‘본 연구’와 ‘본고’에만 집중된 반면 모어 화자의 경우 ‘본 + {연구 대상}’과 ‘이 + {연구 대상}’이 골고루 나타났다. ‘우리’, ‘-들’ 등의 표현을 통한 연구 내용의 일반화는 모어 화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상을 나타내는 방식의 차이, 의존 명사 범주의 유무, 동형 어휘의 의미 차이 등의 요인 때문에 중국어에 의한 간섭이 일어나 중국인 학습자가 객관화 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도 포착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마지막 통과 의례인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해당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항목이나 교재의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간 완화 표현에 집중되어 있던 학술 텍스트의 언어적 표현에 대한 관심을 학술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 직결되는 객관화 표지로 확장하였으나 말뭉치의 규모, 학습자 모어의 한정성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보완된다면 학술 텍스트의 객관화 표지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수사적 전략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담화 표현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현화 외, 「한국어 교육 문법」, 한글파크, 2016.
- 고재필,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곽수진·강현화, 「학술적 논문의 대조수사학적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6권 1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9.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2005.
- 김정자, 「필자의 표현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중섭 외,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2단계」, 국립국어원, 2011.
- 김한샘·배미연, 「학문 목적 학습자의 객관화 전략 사용 양상 연구 - 중국인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를 중심으로」, 『언어 사실과 관점』 41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7.
- 두도, 「한국어 의존명사 중심 문법적 언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박나리, 「학술 논문의 텍스트성 분석 -의도성(intentionality)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8.
- 박나리, 「학문목적 한국어학습자의 학술 논문에 나타난 자기의견표현담화 분석」, 『한국문예창작』 12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3.
- 박나리, 「담화회용 및 텍스트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자기인용구문”」, 『텍스트언어학』 37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4.
- 송용희,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韓國言論學報』 49권 3호, 한국언론학회, 2005.
- 송용희,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07.
- 신명선, 「국어 학술 텍스트에 드러난 헤지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호, 배달말학회, 2006.
- 신영주, 「한국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위 논문 서론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 비교」, 『담화와 인지』 18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11.
- 신지연, 「인문학 학술 텍스트의 담화 특징」, 『텍스트언어학』 35권, 한국텍

스트언어학회, 2013.

안인경·강병창, 「한국어 ‘-ㄴ 것이다’의 텍스트 기능과 독일어 대응 형식에 관한 병렬코퍼스 기반 연구」, 『언어와 언어학』 46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09.

양명희 외,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2015.

양태영, 「설명텍스트의 표지와 텍스트구조 분석」, 『한국어 의미학』 31권, 한국어 의미학회, 2010.

유성희, 「학습자 말뭉치의 문법적 언어 사용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이슬비,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이인영, 「외국인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4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이준호,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 선정 연구」, 『이중언어학』 49권, 이중언어학회, 2012.

임지룡, 「장면의 인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35권 1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04.

정상철, 「<~ㄴ 것이다>의 텍스트 기능과 의미」, 『텍스트 언어학』 4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6.

정여훈,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문체(Style) 오류에 대하여 - 중급 수준의 영어 모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4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9.

허희정, 「4개 분야 한국어 학술텍스트에 나타난 정형표현 비교」, 『언어 사실과 관점』 39, 2016.

최은지, 「외국인 유학생의 보고서 작문에서의 태도 표현 양상」, 『이중언어학』 40권, 이중언어학회, 2009.

Abdesslem, Habib. “Communication strategies or discourse strategies in foreign language performance?.” *IRAL: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34(1), 1996.

Hyland, Ken. “The Author in the Text: Hedging Scientific Writing.” *Hong Kong papers in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18, 1995.

Hyland, Ken “Hedges, boosters and lexical invisibility: Noticing modifiers in academic texts.” *Language Awareness*, 9(4), 2000.

Langacker, Ronald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Theoretical prerequisites*. Vol. 1.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ABSTRACT

Study on the Use of Objectification Strategy in Academic Writing

Kim, Han-saem

Bae, Mi-y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learners' academic texts with academic texts of native speakers and to examine the usage patterns of learners' objectification strategies in detail. In order to achieve objectivity as a discourse mechanism applied to describe the results of academic inquiry in a scientific way with universality and validity, we analyzed concepts and signs such as related intentionality, accuracy, and mitigation of the linguistic markers of objectification strategies.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t was analyzed that there are intersectional overlaps with the signs that reveal objectivity, signs indicating related mechanisms, and there is a different set that is differentiated. Objective markers can be broadly classified as emphasizing stativity of research results, separating research subjects from research results, and generalizing research contents. Sustainable expressions and noun phrases emphasize statehood, and non-inhabited expressions, passive expressions, and self-quotations are maintained in the distance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writer, and the pluralization through first-person pronouns and suffixes contributes to generalization.

In the case of the learner, the non-inhuman expression of the quotation type appears to be very less compared to the native speaker, which could be due to the lack of recognition of the citation method of the Korean academic text. Next, in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earch contents, the expression of 'we' was very less compared to the native speakers.

Key Words :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 learner corpus, objectivity, objectification, academic text

■ 논문접수일 : 2017. 11. 10

■ 심사완료일 : 2017. 11. 30

■ 게재확정일 : 2017. 12. 1